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제 30호

겨레의 창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큰사전 2010 · 겨레말 소식

■ 겨레의 창

「북한 과학기술이야기」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한 CNC

_ 강호제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최근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발전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 침체 현상을 겪은 북한의 입장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2012년을 기점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서겠다는 계획 속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 7월에 정식화된 '과학기술 중시사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은 '국방공업을 앞세우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부문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공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과학기술을 연결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한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북한의 영상이 너무 남루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 수준이 우리와 비교해서 너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실현성이 낮다고 평가절하한다.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가 직결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마련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씩 진행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시험이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북한과 첨단 과학기술이 그렇게 어색한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해방 직후부터 북한 지도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과 1960년대 초에 북한 경제가 달성한 높은 경제 성장률이 과학기술의 뒷받침으로 가능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린다면 최근의 경제발전 전략이 단순한 선전선동용 구호만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CNC화, CNC기술



북련하기계의 CNC 설비 모습
(출처: 자주민보,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계획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지난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해의 활동 계획을 밝힌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는 'CNC화, CNC기술'이라는 알파벳 표기가 그대로 실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CNC는 기계설비를 만드는 기계장치인 '공작기계' 중에서도 '컴퓨터를 통해 수치를 제어하여 작동시키는 공작기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수치제어장치를 장착하여 기계를 지능적으로 자동제어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복잡한 형상을 높은 정밀도로 제조하는 지능화된 공작기계를 가리켜 CNC공작기계라고 부른다.

북한 말은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을 대표하는 '주체'라는 말도 과학기술이나 경제 부문에서 구체화되어 점차 정치, 사상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추상화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연료, 원료, 기술, 인력 등의 자립을 뜻하던 '주체'가 정치, 사상, 군사 부문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올해 공동사설에서 사용한 'CNC화, CNC기술'도 처음에는 최첨단 공작기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점차 추상화, 일반화되어 이제는 '컴퓨터로 조정되는 기계장치 일반', 혹은 '자동화된 생산설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원래 CNC공작기계는 이를 번역한 '자동수자조종장치'로 불렸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그냥 CNC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 시점은 고성능 CNC공작기계에 해당하는 '5축 CNC공작기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음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축'이라는 것은 공작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뜻하는데 축수가 많아질수록 정밀도나 가공속도가 높아지므로 축수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축수를 가지고 '2-3/4-5/6-8/90이상' 4단계로 CNC공작기계의 성능을 구분하는데 이 당시 북한의 기술수준은 두 번째 단계 끝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 4단계에 해당하는 9축 공작기계까지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번역어보다 CNC라는 영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술 수준이 이전과 대폭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를 외부에서도 잘 느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외래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유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강조한 효과도 있었다.

사실 과학기술 용어는 정확한 의미를 표현해야 하므로 번역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북한 지도부는 해방 직후인 1949년 2월부터 교육성 산하에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술용어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려는 경향성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바뀐 듯하다. 주로 최첨단 과학기술 부문부터 외래어가 그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IT부문이 대표적이다. 1990년에 개원한 '조선컴퓨터센터(KCC)'의 이름에 외래어가 그대로 쓰였다. 이런 변화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주도하였던 것 같다. 북한에서 CNC공작기계를 처음 제작하는 데 성공한 1980년대 후반에 김일성은 '수치 조종반, 가공 중심반' 등이 일본식 이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우리말로 바꿀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1986년에 처음으로 완성된 현대적 수자조종선반은 '구성 104호'라고 불렸고 이는 1988년부터 '104호분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대량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공장은 가동률이 30%까지 떨어졌다. 당연히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제대로 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작기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끊기지 않아 1995년에는 상당히 발전한 수준의 CNC공작기계인 '구성 10호'가 개발되었다. 이는 1990년대말, 2000년대 초에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평화체제 정착이 필요한 시점

오늘날 전세계 CNC공작기계 생산시장은 5~10여개의 국가가 독차지하고 있다. 고성능 공작기계가 있어야 생산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전세계의 모든 공장들은 이들 몇 개 국가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CNC공작기계 제작 기술은 최소 10위권 이내, 높게 잡으면 5위권 이내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낙후된 생산설비들을 일거에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북한의 경제는 급격히 살아날 수 있게 된다. '직방도달, 단번도약, 연속비약' 등의 구호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신년 공동사설에서까지 강조했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이런 식의 설비교체에 많은 자원이 들어갈텐데 지금처럼 군사,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게 되면 군사비의 비중을 낮출 수 없어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다. 물론 외국과의 협력도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비록 지금은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지만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려는 의지가 북한 지도부에게 매우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충돌이 끝나면 급격히 긴장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



| 강호제 |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다음, 같은 대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북한 과학기술사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외를 통틀어 북한 과학기술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학자이다. 대표저서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1'(선인, 2007)이 있다. 2009년 1월부터 '에피소드로 본 북 과학사'를 <민족21>에서 연재 중이고, 2010년 10월부터 <D&D 포커스>에서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연재 중이다.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제 30호

겨레의 창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큰사전 2010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우체통

시 받아쓰기

_ 복효근 / 교사, 시인

20년 가까이 '시를 짓'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생각해보니 시는 짓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다르다. 한자어인 '작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풀어 쓰다 보니 '글을 짓다'가 되고 '작시'는 '시를 짓다'가 된 것은 아닌가 싶다. 특히 시는 허구인 소설과는 달리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붙잡아 글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쓰다'라는 표현이 걸맞겠다.

소설을 쓰기 위해선 뛰어난 상상력이 필요하고 시를 쓰기 위해선 면밀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물론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도 경험과 함께 면밀한 관찰력이 중요하고 또 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허구적 상상력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시는 시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말하기는 어렵다. 시인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시적 자아를 내세워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곧 시인의 목소리이고 보면 없는 것을 지어내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말에 "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말아본다", "맛본다" 는 말이 있는데 이는 눈으로만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시는 그래서 머리로 쓰는 일이 아니라 온몸으로 쓰는 일이다.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옮겨 쓰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보면 그냥 '쓴다'는 표현을 '받아 쓴다'라고 해야 옳을 것도 같다.

때로 가만히 관찰만 해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시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에게 시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 나와 얘기를 나누는 사람의 말이 곧 시인 경우가 있다. 내가 시를 짓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면밀하게 관찰만 해도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받아 적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요즘 어머니의 '말'을 곧잘 받아 적는다.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렸다. 어머니께 비가 많이 내린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농담을 잘 하신다. 그 날도 내가 드린 말씀에 어머니는 농담하시듯 "넙뉘라."라고 대꾸를 하신다. '넙뉘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우리말 큰사전을 찾아보니 전라도 사투리라 한다. 조선말대사전을 찾아보니 전남사투리로 나와 있다. 그나저나 어머니의 이 말씀과 함께 이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시가 되겠다 싶었다. 나는 곧바로 이 상황을 짧게 압축하여 '받아 적었다'.

어머니 비가 역수로 내려요

넙뉘라

넙뉘다

비가 그쳤다

출작 「어머니의 힘」 전문

어머니는 농담으로 하셨겠지만, 순간 내 머리 속에는 농담 그 이상의 묵직한 진리가 느껴졌다. 마치 높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주고받는 선문답 같은 느낌도 들었다. 내가 넙뉘지 않고 어찌랴. 하늘이 알아서 하는 일을. 넙뉘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머니라고 이를 모르시랴. '하늘일은 하늘에 맡겨두고 너는 네 일이나 하여라.' 혹은 '긷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단다.'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였다.

어쨌건 어머니께서 이 '넙뉘라'를 '내버려 두어라' 매끄러운 표준어로 표현하셨다면 이만한 울림이 있었을까? 어머니의 다듬어지지 않은 이 '말'에는 야생의, 날것의 싱싱한 힘과 지혜가 담겨 있다. 출작 한 편 더 소개하겠다.

팔순의 우리 어머니
텃밭 고추모종에 물을 주시면서

하난님은 뭐 하신다나
호랭이가 각 물어갈놈으 날씨
무신 가뭄이 이리 질다

그 육, 하도나 싱싱하여 청량한 시 한 편이 따로 없더군
날씨는 하느님 것이어서
하느님도 놀랐는지 아침녘 지나서 갑자기 비 한 돌금 뿌려주더군

하난님도 무신 진지곰쟁이 맹기로 비를 뿌레도
포도시 빼액이 눈물만큼만 주시네
참, 엠병 오심을 헐.....

우리 어머니 서늘한 육 덕분에
가마솥에 누룽지 눈듯이 말라가던 발이랑
어린 고추모종들이
아쉬운 대로 애면글면 일어서질 않았겠어

가뭄 끝 울 어머니 따다주신 그 풋고추에
내 빈혈의 허끝이 얼얼하더군
어디 가서 시 쓴다는 말 못 하겠네

출작 「푸르른 육」 전문

이 역시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 쓴' 것이다. 농사꾼에게 어린 모종은 자식과 같다. 그 어린 싹을 돌보면서 타들어가듯 어머니의 속은 기어이 육두문자를 내놓으신다. 그것도 하느님의 영역인 날씨에게. 마치 날씨라는 불한당에게 매 맞고 들어온 고추모종 어린 자식 역성들듯이 말이다. 그 모습이 조금도 상스럽지 아니하였다. 어머니의 그 말씀들은 오히려 쭈들쭈들 살아있는 생물체로 느껴졌다.

어머니가 하신 '말'은 표준어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국어사전에는 없거나 있다 해도 그 의미를 온전히 풀어놓은 게 없다. 책을 통하여, 혹은 사전을 통하여 익힌 말이 아니다. 노동 속에서 고단한 삶속에서 익힌 말이다. 머리로 지어서, 다듬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지혜와 진리가 배어있다.

이후로도 머리를 쥐어짜서 시를 '짓기'보다 내 어머니와 같이 노동하고 고뇌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웃과 푸르게 살아있는 것들의 '말'을 잘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받아 쓸' 것이다.



| 복효근 |

1991년 계간 『시와시학』으로 등단하여, 판운문학상,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는 「당신이 술을 때 나는 사랑한다」, 「버마재비 사랑」, 「새에 대한 반성문」, 「누우 떼가 강을 건너는 법」, 「목련꽃 브라자」, 「마늘 촛불」과 시선집 「어느 대나무의 고백」 등이 있다.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제 30호

겨레의 창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큰사전 2010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나들이

한국어 관련 어휘 자료 조사 위해 일본 오사카로 향해

_ 모순영 / 겨레말큰사전 총무과장

사업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오사카 내 한국어 관련 어휘 자료 조사 및 소재 파악에 나섰다. 사업회는 이를 위해 한용운 편찬실장, 이길재 새어휘팀장, 임보선 집필팀장, 김강출 올림말팀장, 모순영 총무과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오사카에서 진행된 이번 자료 조사는 첫째,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재일교포 어휘 자료 조사 및 말뭉치 확보를 위함이다. 사업회는 방문 첫 날인 3일 오후 천리대학 도서관 방문 및 개인 자료 소장자 면담, 출판사 소재 파악 등에 주력하였다.

둘째, 재일 한국어 학자 및 문학인들을 초청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편찬 사업의 취지 및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는 현지 한국어전공자 및 문학인과 사업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모색하는 계기였다. 셋째, 현지 한국어 학자나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새어휘 조사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업회는 이번 어휘 자료 조사를 통해 일본 교포 사회의 한국어 사용 실태와 한국 관련 도서 출간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지 한국어 학자 및 문학인 면담을 통해 『불씨』, 『문학예술』, 『뭇별』, 『꽃송이』 등의 도서를 기증 받았다. 또한 일본에서 한글로 간행되는 신문 현황 및 신문사 소재 파악 결과, 『조선신보』, 『민단일보』의 출처 및 자료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설명회 사진

한편 4일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인 학자 및 문학인과의 면담을 통해 개인 문집 현황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날 참석한 분들의 도움으로 『출발의 날에』(2권), 『신진달래』, 『봄향기』(4권), 『동포동네』, 『민들레꽃』, 『서곡』, 『비바람 속에서』, 『봄잔디』 등의 도서를 기증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사업회는 이번 자료 조사를 통해 재일교포 어휘 조사의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교포 어휘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직접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교토 지역 어휘 조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현지 조사 제보자 면담 중에 새어휘를 수집하였고

나아가 사업회 편찬 관련 협조 요청 시 천리대학, 칸사이대학 등의 한국어 관련학과 교수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통일부 김민경 사무관, 이병욱 주무관, 한국수출입은행 김성욱 차장이 모니터링을 위해 동행하였다.



천리대학 도서관 자료 사진

겨레말큰사전

누리판

제 30호

겨레의 창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큰사전 2010](#) · 겨레말 소식

■ 겨레말큰사전 2010



2010년도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사전 편찬을 위한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남측편찬실에서는 상근 인력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사전 편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동안 편찬사업비가 나오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도 10월에 편찬사업비 일부가 지원되어 집필분과와 새어휘분과의 집필과 교열에 투입하였으며, 새어휘조사도 재개하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2010년에도 올림말분과, 집필분과, 새어휘분과, 정보화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올림말분과에서는 남측에서만 올림말 24,110개 심사를 마쳤으며, <계열어휘>¹조사 및 정비, <관련어>²정비, <관용구/속담> 목록 정비 등을 하였다.

집필분과에서는 올해 남북공동 집필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필 27,800개, 교열 37,890개, 북측 원고 검토, 남측 원고 재검토를 묵묵히 진행하였다. 또한 <통합자료>³정비, <문법형태(토/접사)> 목록 정리, 기존 원고 파일 정리 등을 하였다.

새어휘분과에서는 새어휘 집필 16,240개, 새어휘 교열 6,500개(남측 새어휘 4,000개, 북측 새어휘 2,500개)가 진행되었다. 새어휘 조사는 10월 편찬사업비 예산지원 후 재개되어, 1,000여 개의 새어휘가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역사 말뭉치 정비 작업 등도 이루어 졌다.

정보화분과에서는 원고를 집필하는 프로그램과 원고 보는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원고 파일 정리 및 집필 원고 용례 추출과 선별하는 도구 등을 개발 하였다. 또한 언어정보 DB 보완, 서버 관리와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이 진행되었다.



1 계열어휘는 예를 들어 '육조판서' 라는 어휘의 계열인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를 '육조판서' 의 계열어휘라고 한다.
2 관련어는 '아버지' 라는 어휘와 관련이 있는 아버님, 아빠, 아범, 아비, 큰아버지~, 어머니, 어머님, 엄마, 어머, 어머 등을 모두 관련어라고 한다.
3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합친 데이터베이스 자료.

▶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진척률(2010. 12)

업무	항목	내용	업무 비중 (%)	업무별 진척률(%)	전체 대비 진척률(%)
올림말		올림말 선별요강 합의, 올림말 선별 1차 및 2차 작업 <계열어/관련어> 정비 작업 진행 중	20	90	18
새어휘		새어휘 조사요강 합의, 새어휘 선별 및 조사 작업 진행 중	10	71	7.1
집필	기존 올림말 집필	집필요강 합의, 시범 집필 완료, 본집필 진행 중	30	37	11.1
	새어휘 집필	집필요강 합의, 시범 집필 완료, 본집필 진행 중	10	40	4
편찬 프로그램 개발/운동		용례검색 프로그램, 원고입력 프로그램 등 개발	10	75	7.5
단일어문규범		자모 명칭, 자모순 논의,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중	10	90	9
교정·교열 및 출판			10	0	0
계			100	-	56.7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제 30 호

겨레의 창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큰사전 2010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제47차와 제48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5일, 12월 20일 사업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47차 회의에서는 <편찬사업비 추가 지원 내역> 및 <사업 진행 현황> 보고와 <학계 자문회의 계획> 등이 논의 되었다. 제48차 회의에서는 <'11년도 사업 진행 현황> 및 <학계 자문회의 결과> 보고와 <'11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이 논의 되었다.



[1] 23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제 30호

겨레의 창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큰사전 2010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부산 지역어 조사 모니터링

편찬사업회는 지난 11월 25일 부산 강서구 불림동 해포마을을 찾아 경남 지역어 조사자인 이근열 선생과 함께 지역어 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모니터링 외에도 소채(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채소), 우장(도롱이), 도방 사람(도회지 사람) 등 부산 지역어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겨레말 큰사전

누리판

제 30 호

겨레의 창 · 겨레말 우체통 · 겨레말 나들이 · 겨레말큰사전 2010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소식

제19차 정기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10일 제19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고은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규, 장영달 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0년 사업 현황과 예산 보고>를 시작으로 <편찬사업비 추가 지원 내역>, <지역어 조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201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안건이 승인 되었다.

